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가족향상프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Family Life Education: Some Issues & Perspectives
-From the Review of Family Enrichment Programs-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鄭賢淑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ung, Hyunsook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Family life education and marriage enrichment are seen as a rapidly developing new approach for serving marriages and families in Korea.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concept of marriage enrichment & family life education. Especially historical development, theoretical orientation and ethics, process, methods and techniques of marriage enrichment are critically reviewe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dded.

I. 서론

1970년 이후 사회교육의 한 방면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교육이, 1980년대에서는 교회에서 사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양한 집단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재는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및 기타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단위 강좌

* 본 연구는 1998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와 성당을 중심으로 교리와 연결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오윤자, 1995).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ME운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가를 초대해서 특별한 주제를 대형강의로 운영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 왔다.

가족생활 교육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족생활 교육의 시작시기인 1970년대에는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내용면에서는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교양교육과 가정관리, 결혼관을 주로 다루었다(박미경·김득성, 1997). 1990년 이후에는 가족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대상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박미경·김득성, 1997), 편모가족(김경신, 1997)에서부터, 신혼부부 및 부부(유은희·정현숙, 1995; 오윤자·유영주, 1994; 최혜경·노치영, 1994), 중년 며느리(유은희·홍숙자·전길량, 1996), 젊은 며느리(이정연·정혜정·장진경, 1996), 노인 및 노부모(이성연·신상옥, 1996; 홍성희 외, 1997; 홍숙자·이형실, 1995; 홍숙자·이형실·전길량, 1995), 부모교육(유은희·홍숙자, 1998)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나 우리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의 기본적인 동의 없이 각 연구자의 이론적 주장에 의해 개념이 정의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생활교육의 기본적 틀은 NCFR과 Arcus, Schvaneveldt와 Moss(1993)의 이론적 틀을 많은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운영 면에서는 Mace(1975)의 Association of Couples for Marriage Enrichment (ACME)에서 주장하는 가족향상(family enrichment)의 개념적 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ACME의 다양한 기술과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는 실제 우리 나라의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간과되

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생활교육 자료집에서조차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이 가족향상의 의미까지 포함하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향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생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념의 명확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1)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 2) 가족향상의 철학과 가치관, 3) 가족향상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등 가족향상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가족생활교육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에 대한 이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상담(family therapy),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가족향상(family enrichment)의 4분야가 대표적이다(L'abate & Wright, 1977). 이중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강화하기'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워크샵, 회보나 소식지(newsletter),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프로그램, 책과 팸플릿 등을 자료로 이용해 교육한다. 미국 NCFR의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생활교육은 더 만족스럽고 건설적인 삶을 위하여 개인(혹은 가족)의 잠재력 개발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의 대상은 부모, 결혼한 부부, 이혼한 부부나 전체 가족도 될 수 있다(Bowman & Kieren, 1985)고 한다. 가족생활 교육자들을 위해 1984년 이래 NCFR에서 가족생활교육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Hughes, 1994; Thomas & Arcus, 1992), 우리 나라에서도 가족관계학회에서 가족생활교육사 2급, 1급, 전문가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1970년 이후 가족생활교육과는 조금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향상(enrichment)이라는 분야가 등장하였다. 1998년 현재 38주년¹⁾을 맞는 가족향상은 가족에 행하는 서비스로 가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NCFR에서도 가족생활교육분과(family education section)를 가족생활교육과 향상분과(education & enrichment section)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NCFR과 AAMFT를 중심으로 활발히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988년에는 처음으로 결혼향상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으며, 1989년 AAMFT에서 다수의 향상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Dyer & Dyer, 1990).

삶을 증진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첨가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미 그 속에 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기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인간을 서서히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결혼의 성장(marital growth)', '결혼의 잠재력(marital potential)', '결혼의 건강(marital health)'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합하는 의미가 향상(enrichment)이다(Mace & Mace, 1975; Mace, 1979; Smith, Shoffner, Scott, 1979). 따라서 "가족향상은 예방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특별한 형태로 상대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들의 강점(strength)을 증가시키기 원하는 가족과 가구가 대상이며,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가족이나 가구에 현재 존재하는 강점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Bowman & Kieren, 1985, p. 617). 즉, 가족향상의 대상은 결혼이 잘 기능하고 있으나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상담을 요하는 위기에 있는 부부가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부부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생활, 성적 관계와 결혼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Otto, 1975). 그러므로 가족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중심(couple-focused)이며 행

동중심(action-oriented)(Mace, 1979; Smith, Shoffner, Scott, 1979)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가족생활향상프로그램(family life enhancement program)은 같은 목적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Otto, 1975).

가족향상은 '인간의 잠재성에 대한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은 정상부부와 정상가족이며, 비형식적 환경에서, 경험에 의한 학습(experimental learning)을 강조한다(Mace, 1979, 1981; Smith, Shoffner, Scott, 1979). 가족의 강점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내용은 의사소통기술의 습득이다. 또한 의사소통기술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인간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부부집단이나 전체가족이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상으로 배울 수 있다(Smith et al., 1979)고 인식되고 있다. 가족향상프로그램은 집단역학과 인본주의 심리학, 심리극, 인간잠재력 운동, T 집단(T-group), 민감성 훈련집단(sensitivity group)의 영향으로 집단활동과 개인적 성장, 개인적 개방, 정서의 인식, 경험적 학습을 강조한다(Denton, 1990). 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석자들을 통해 개별 가족내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집단모임이 각 가족에게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는 1970년과 80년대 초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명확한 개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가족향상프로그램이 가족생활교육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즉, 전반적인 개념적 틀은 가족생활교육에서 빌려왔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가족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 두 가지가 거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Bowman과 Kieren(1985)이 명명한 것과 같이 가족향상의 현재 상태는 행동(action)보다는 이야기 거리(talk)라는 지적이 현재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다. 구체적인 예는

1) 가족향상운동의 시작은 Spain에서 Gabriel Calvo신부가 처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1월), Mace부부가 Quaker 결혼향상(10월)을 시작한 1962년을 기준으로 하며(Dyer & Dyer, 1990), 1998년 38주년을 맞았다.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한다.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및 기타 연구소를 통하여 가족생활에 필요한 이론, 지식, 기술, 상담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형태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와 성당, 사찰에서 종교적 교리를 중심으로 강의, 반성, 믿음, 감사, 편지쓰기, 짝기도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부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대학부설기관의 가족생활교육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단체기관의 가족생활교육은 부분적으로는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관심이 고조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 위주의 대형강좌가 실시되고 있다(오윤자, 1995).

소규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1994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의 개소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은 가족상담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가족향상프로그램인 '부부대화법'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족생활과 가족향상이 혼재되어 실시되고 있어 그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Dyer와 Dyer(1990), Mace(1979, 1981) 및 NCFR의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기준에서는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전개방식 등이 구별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러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에 대한 차이를 가족상담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부부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노년기가족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창안자에 의한 교육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준비교육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에서부터(예; YMCA의 결혼강좌 등), 구체적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예; 두란노서원의 「결혼예비학교」, 가톨릭의 「선택」 등)으로도 구분된다.

<표 1> 가족생활교육, 가족향상 및 가족치료의 유사점과 차이점

	가족생활교육	가족치료/상담	가족향상
목적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강화하기		
대상	기능적, 비기능적 개인이나 가족	문제있는 가족/ 부부	기능적 가족
교육 방법	인지적학습		경험적 학습
정보 방향	지도자 → 참석자	내담자 → 상담자	주로 참석자들 내에서
지시정도	가장 지시적	가장 비지시적	가족생활교육과 치료의 중간
시간	제한된 시간에 실시	시간이 제한되지 않음	제한된 시간에 실시
고객	주로 개인, 부모, 예비부모	부부나 가족	부부나 가족
비용	가장 저렴	가장 비쌈	중간정도
구조화정도		치료기술에 따라 차이	가장 구조화됨
훈련정도	지도자: 학부수준, 전문가:박사학위	박사학위	석사수준, 지도자는 박사학위
실시방법	워크샵, 비디오, 회보, 책, 팸플렛		지도서, 명확한 이론적 배경
대표기관	NCFR에서 CFLE(1982년 이후)	AAMFT	ACME

2. 가족향상의 역사

가족향상프로그램은 5, 60년대에 유행했던 집단역학과 인본주의 심리학, 60-70년대에 유행했던 심리극, 인간잠재력 운동, T집단, 감수성훈련집단의 영향으로 '집단활동과 개인의 성장, 개인적 개방, 정서의 인식, 경험적 학습' 등을 중요시하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Denton, 1990). 1960년대 초 케이커 종파인 프렌드파(Society of Friends)에 속한 David 와 Vera Mace 부부가 North Carolina의 동부 해안지역에서 시작한 가족향상프로그램이 시작이며, 곧이어 Herbert와 Robert Otto 부부에 의해서는 서부 해변을 중심으로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Mace의 제자인 Leon Smith가 감리교에 고용되면서 North Carolina의 Fayetteville에서 목사부부들을 교육한 것이 시발점이다(Mace & Mace, 1974; Smith et al., 1979). 이러한 이유로 가족향상이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현재는 종교적인 단체 이외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 보급되고 있다.

이미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가족사회학은 1960년대 이전부터 있었으나, 인간의 성, 인간의 잠재력(human potential), 인본주의적 심리학, 정서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내용 등 새로운 요소들이 이 새로운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로 이용되었다.

1947년 Maine 주의 Bethel에 있던 전국훈련연구소(National Training Lab)에서 불기 시작한 '민감성'에 대한 관심에서 '만남(encounter)'으로 또한 '인간잠재력'에서 '만남'으로의 개념적 철학적 경향이 1950년대 후반부터는 캘리포니아의 Esalen을 중심으로 서부해안지역으로 퍼지게되었다(Smith, Shoffner & Scott, 1979).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만족하지 않았던 Otto(1976)는 1961년에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개입하는 치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선구자들은 정상적이고 안정된 지위로부터의 성장을 의미하는 '향상(enrich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 후

반(17개)과 80년대 초반(18개)에 많은 양의 논문들이 학술잡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Denton, 1990)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몇몇 종교집단에서 결혼과 가족향상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965년 연합감리교재단에서 각각의 주에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National Marriage Communication Lab Training Program)'이라는 지도자 훈련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가족향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종교단체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대학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의 발전이 있었다.

이후 Charlotte에 있는 가족과 아동국(The Family and Children's Service), Winston-Salem에 있는 목회(Human Enrich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School of Pastoral Care)와 미국 모라비아교단(Moravian Church in America) 세 곳에서 가족향상지도자(Family Enrichment Leader)를 위한 첫 번째 지도자 강습회를 열었으며, Laurel Ridge의 주도하에 1977년 제 2차 지도자훈련(supervised practicum)을 실시하여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연수를 받았다고 한다(Smith, Shoffner, Scott, 1979). 이 세 도시는 모두 North Carolina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향상프로그램의 발달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3년 Mace부부에 의해 설립된 ACME는 1997년 현재 미국 50개 주와 세계 31개국에 지부를 결성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부부관계의 강화, 개인적 성장 향상, 상호만족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며, 1년에 한번 국제결혼향상협의회(International Marriage Enrichment Conference)를 개최하며, 두 달에 한번씩 소식지를 발간하여 전 회원에게 우송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도 공식적인 가족생활교육과 상담 이외에 가족과 결혼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관계 이론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1966년 Wake Forrest 대학의 의과대학내의 행동과학센터(현재는 Medical Social Science & Mental Health로 바뀜)에서 Clark Vincent와 후임인 Marvin Sussman에 의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참여자로는 1973년 국제적인 가족향상을 위한 기관인 ACME를

창설한 Mace부부도 포함되어있다.

미네소타대학(Univ. of Minnesota)에서는 미네소타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부부의사소통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는 L'Abate에 의해 결혼과 가족훈련 프로그램이, 플로리다대학에서는 Carl Clarke에 의해 긍정적접근법(Positive approach)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밖에도 상담교육과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한 대학에서 가족향상프로그램을 접목시켜나갔다(예, 미시간 주립대, 아이오와대학, 미네소타대학, 노우스다코타 대학, 알버타 대학, 펜실바니아대학, 노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등). Gressboro에 있는 노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R. Smith와 M. Keister에 의해 1973년부터 결혼과 가족향상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박사과정에서 세미나 과목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박사학위논문과 많은 저서를 출간하였다.

3. 가족향상교육프로그램의 철학과 가치관

Dyer 와 Dyer(1990)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향상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이론적 배경이나 철학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나, 우리 나라 프로그램에서도 철학과 가치관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윤자(1994, 1995)는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해 이론적 근거 틀에 의한 전문적인 체계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법, 프로그램 내용, 교육실시자의 자질, 평가방법 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점을 이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를 양성하는 가족관계학회에서조차 가족생활에 대한 철학 및 내용, 가족생활교육사의 자격 등에 대한 합의된 지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철학의 문제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람 자신의 가족과 부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마련된 기초 하에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향상을 위한 훈련은 기술습득과 유지, 태도의 변화, 문제해결, 오락(recreation) 등이 포함된다. 이 상을 기초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가족향상의 이론적 모델은 <표 2>와 같이 가족성장모델, 기술중심모델, 종교적인 모델, 여가/사교모델의 4가지가 대표적이다(Bowman & Kieren, 1985).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도 정서중심기술교육 프로그램(예, ME, 크리스찬 결혼향상 주말프로그램 등), 사고력과 판단력 중심 프로그램(예, Preventive Maintenance model, Jewish Marriage Encounter), 활동과 기술훈련프로그램(Nunnally와 동료들의 Communication Skill Training) 등으로 구분된다(L'abate, Ulrici, Wagner, 1981).

<표 2>의 4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ME를 중심으로 한 종교모델이 주를 이루며, 가족학 분야에서는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 각각의 이론적 모델의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된 연구결과가 없으나, 4가지 모델이 모두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다룬 프로그램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술모델의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규련과 동료들(1997)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일년간 폭력경험이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방법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고 상당한 결과 교육받은 사람들이 갈등상황을 더욱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으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심리적 복지수준의 향상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은 젊은 며느리들이 고부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말하기 듣기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한 결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기술교육보다는 노인부양을 위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교육한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부양지식 및 정보인지 측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5), 기술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9개의 결혼전, 후 향상프로그램의 효

〈표 2〉 가족향상의 이론적 모델

가족향상모델	프로그램의 예	특징
가족성장모델 (family growth models)	제일안식교, The Family Cluster	가족들이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가족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과정
기술모델 (family skill models)	Satir, People Making Guerny, Relationship Enhancement L'Abate, Enrichment: Structural Intervention	실습을 통한 기술을 가르침
종교적인 모델 (family-based religious models)	ME 가족주말경험(Family Weekend experience)	설교적이며 종교적인 기초
여가/사교 중심모델 (family-based models for recreation and socializing)	Otto & Kilmer, Family Fun Council & family camps	가족은 서로 나누고, 즐기고, 오락을 통해 강해 진다는데 기초함

과를 검증한 Gurman과 Kniskern (1977)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이 지나치게 짧은 시기의 효과만을 보고있으며, 적절한 통제집단과의 비교의 실패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 역시 효과검증이 2주일(최규련 외, 1997), 1개월 후(홍숙자 외, 1995), 교육직후(유은희·홍숙자·전길양, 1996) 등으로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아직은 많은 프로그램이 제안단계에 있어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예, 김명자·송말희, 1998; 조은숙 외, 1998). 사회교육원이나 교회나 성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은 효과 검증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바람직하나 왜 이 분야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가하는 점에 대한 Denton(1990)의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Denton은 가족향상 프로그램이 종교에 지나치게 기반을 둔 점이 이 분야 발

전에 장애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Doherty, McCabe와 Ryder(1978)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나 스트레스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하지 않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문제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대중이 떠나게 되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사교 중심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에게 유인가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가족이 매우 사적인 영역이며, 가족단위의 행위는 즐거움을 나누는 오락 위주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도입해 볼만한 모델이다.

4. 가족향상교육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향상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향상은 가족생활교육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가족향상의 기본적인 체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들

〈표 3〉 가족향상의 진행방법 및 진행상의 주의점

진행방법	내 용
독자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법	· 주말에 등록, 부부문제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반응을 쓴 뒤, 각자 방에서 토의. · 격려, 자극, 지지를 강조하며, 부부의 의미 있는 만남을 증진함 · 다른 부부와 상호작용은 없음(부부들간의 비밀보장이 중요).
상 담	· 문제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잠재영역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행동지향적 접근 · 갈등해결과 분노관리법, 불일치해결 방법들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집단상호작용	· 가족향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6-8주 저녁 프로그램으로 진행) · 지지그룹모임은 1년 이상 지속됨(부부집단에 의해 유도됨) · 교육과, 훈련들, 부부끼리의 의견교환, 집단 의견교환이 포함됨.

의 관계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ME와 같은 부부들의 독자적 노력(supervised self-effort)을 강조하는 방법, 상담, 부부집단 상호작용(couple group dynamics)이 있다(Mace, 1979). 3가지 방법의 특징과 진행방법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또한 Mace(1979)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가 포함된 결혼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현재 관계를 진단하고 왜 불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불만스러운 영역의 파악)이며, 두 번째 요소는 부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장계획(Growth Plan)을 짜는 과정, 세 번째 요소는 바람직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Mace가 제시한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많은 프로그램이 가족향상보다는 가족생활교육의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첫 시간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프로그램개발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중요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부부간의 차이점을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예를 들면, 최혜경(1997), 유은희(1997), 오윤자(1994) 등)이 주로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족생활교육을 새

롭게 시작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향상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구성된 대표적인 가족향상 프로그램으로는 Mace(1975)의 결혼향상을 위한 부부연합(ACME), Miller, Nunnally, Wackman과 Brayman(1975)의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Smith 와 Smith(1976)의 전국결혼의사소통위원회(National Marriage Communication Lab), Underwood(1977)의 성인 성장과 부모교육(Adult Growth and Parent Education)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Miller 등이 개발한 부부의사소통프로그램이 ‘부부대화법’으로 번역되어 많은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규련(1997)에 의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이 합의되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 4〉와 같은 기술(techniques)과 기술을 수행하는데 주의할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의 선택은 개별지도자의 능력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며,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구조화된 기술과 모델링, 부부간의 대화, 집단토의를 이용한다. 특히 집단토의를 위해서는 집단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집단의 규칙은 첫 회에 만들어져야한다. Mace(1979)에 의하면 부부집단에 참석하는 경우 문

〈표 4〉 가족향상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기술 및 사용상 주의점

	방 법	주 의 점
구조화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관계훈련에 기초 · 상황을 설정하고 운영할 지도자가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됨. · 이 과정은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수단이며, 문제해결에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연습 시 지도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집단상호작용의 효율성이 감소되므로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함.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에 의한 모델링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지도자가 부부인 것이 바람직함. · 집단과 관련지어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자임 · 부부간의 대화가 모델링의 기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의 경우 모델링의 기회가 지도자에만 제한됨. · 소집단의 경우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보여줌으로써 부부관계에 대한 금기를 깰 수도 있음.
부부간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합의한 주제로 듣기, 자아-노출, 공감기술 등을 이용해 이야기하는 것 · 여러 부부가 동시에 독자적인 대화, 부부간 개별대화, 개방적 부부대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화 시 배경음악이 효과적(시간: 20분정도) · 개방적 부부대회는 지도자 부부가 실시하며 5-8쌍 규모가 적절하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부부들 긴장수준이 높아짐.
집단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가지고 집단이 대화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토론이 될 수 있어 최소한으로 제한. · 지도자의 진단, 분석, 충고보다는 경험을 나누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제를 말하지 않는 부부들은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집단에서 부부들은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집단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구체적 규칙으로는 참가자들이 가족향상프로그램은 토론집단이 아니며, 다른 부부에 대항할 수 없고 서로 도와야한다는 것 등 이다. 또한 서로를 진단하거나 상담할 수 없으며 단지 토의중인 주제에 대해 나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제공해야하며, 집단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5. 결혼향상 프로그램의 진행, 구성 및 방법

결혼향상 프로그램의 진행단계는 Dyer와 Dyer (1990)가 제시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5단계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첫 단계는

‘안정감과 일체감 형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의 개인적인 특징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미심쩍음, 거부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오기 때문에 긍정적 경험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부가 가능한 빨리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편안하게 느끼면 참가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또 다른 부부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하므로 안정감과 일체감을 갖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자각단계’로 부부들이 현재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가족향상의 기본 입장이 가족의 성장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이 특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어떠한 변화를 통해 관계가 더욱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가족구성원들이 성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변화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사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면 이 단계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면 세 번째 단계인 '기술과 지식습득단계'에 들어간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발견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성장을 위한 계획단계'로 결혼관계에서의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행할 기회를 참석자에게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점은 의도성이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가 그들의 관계의 결과에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책임감을 인식할 때만이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단계는 '축하의식과 종결과정'으로 일체감을 다시 강화하고, 관계를 축하하며, 애정을 견고히 하고 종결하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단계를 거쳐 가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혼향상의 주요 과정이다.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첫 회를 가족원들간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첫 단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구조화 정도에 따라 구조화된 모델(지도자가 전과정의 진행을 책임지는 형태)과 덜 구조화된 모델(참여자들의 요구와 활

동이 더 첨가되어 개별적인 지도자가 과정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뉠 수 있다(Dyer & Dyer, 1990). 구조화된 모델보다는 덜 구조화된 모델로 집단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체제는 <표 5>와 같이 주말 숙박프로그램, 성장집단(growth group), 지지집단(support group)으로 구성된다. 주말숙박프로그램과 성장집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어(Dyer & Dyer, 1990), 어느 체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주말숙박프로그램과 성장집단을 비교한 Davis 등의 연구(1982)에 의하면, 성장집단 참석자들이 숙박프로그램 참석자들보다 결혼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Stedman(1982)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Mace(1979)는 부부가 초기의 효과적인 집단경험을 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부들로 구성된 지지집단과 함께 일년정도 지지집단에 참여한 부부에게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융통성과 훈련

<표 5> 프로그램의 체제

종류	내 용
주말숙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부부가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주거형태의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오후까지 실시(ME) · Mace(ACME)의 모델은 적어도 한 지도부부가 8부부를 지도하게 하며, 성격자와 한 쌍의 지도부부가 지도함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니주말프로그램이 제안 됨. 시간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오후에 실시하며 잠은 집에서 자게 함
성장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숙박프로그램의 다른 형태로 약 6주 동안 1주일에 한번씩 2-3시간을 만나는 형태 · 주말숙박프로그램과 같은 주제를 다루나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지지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숙박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한 후속 활동 · 주말숙박프로그램에서 부부들의 태도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으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지집단의 필요성을 ACME와 National Marriage Encounter에서는 강조함 · 약 3-4주에 한번씩 3시간동안 5-8쌍 부부 모임으로 구성하나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주로 한가지 주제를 다루며, 주말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연습함.

모델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지집단에 대한 계획은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카톨릭에서 실시하는 ME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성장집단체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톨릭의 ME는 현재 20년의 연륜을 쌓으며 국민적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각 교구 단위로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서로 모르는 30여 쌍의 부부가 함께 합숙하며 진행된다. 1997년 현재 약 4만5천 쌍(중앙일보, 1997. 9. 28.)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비신자도 30%에 이른다. 이밖에도 한국기독교상담문화원, 한국능력협회, 서울시 가정상담소, 성장상담연구소도 부부를 대상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한겨레, 1994. 11.1.; 한국일보, 1994. 1.17.).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내용에 대해서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실시 후 전반적인 반응을 검토하는 정도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험적인 학습과 집단과정(Mace, 1979; Mace & Mace, 1981; Smith et al., 1979, Dyer & Dyer, 1990)이다. 이는 경험은 학습에 앞서고, 상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하는 학습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대인관계에서의 변화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들이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새로운 방법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yer & Dyer, 1990). 또한 집단에서의 역동적인 과정(group process)은 경험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강의식 수업은 수동적이며, 경험적 학습은 능동적, 활동적이다. 강의를 듣거나 필름을 보는 것은 학습자 서로를 모르게 하며 상처받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험적 학습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때 학습자의 새로운 용기

를 북돋워 줄 수 있다. 가족향상의 초점은 관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체계에 포함된 개인 각자의 시선을 잃지 않을 방법을 지도자가 선택하여야만 한다. 관계는 배우자 각자의 개인적 성장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Dyer & Dyer, 1990).

Ⅲ.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개념의 명확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가족생활과 가족향상에 대한 개념과 가족향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가족향상의 기술과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고려해야될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생활교육에서 이미 가족향상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이미 가족향상을 협의의 가족생활교육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으므로(예, 박미경, 김득성, 1997),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을 분리하여 두 개의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생활교육이 우리 나라에서는 좀 더 보편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족향상의 내용을 포함시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록 가족향상이 더 구조화되고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두 방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지도자가 부부인 점과 집단상담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가족생활교육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기술 습득과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향상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향상의 핵심은 인간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학습이 기초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체계이론과 인간잠재력에 대한 가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 실험할 기회를 주면 가족체계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방법을 찾아 기능 할 것이라는 인식을 지도자들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내용의 강의를 통한 학습보다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용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들은 가족생활교육으로서의 프로그램에서 가족향상의 내용을 포함하되, 실시 방법적인 면에서는 대중강연을 위한 프로그램과 소집단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강연 중심의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NCFR에서 나온 '교사용 교재(Teacher's Kit)'와 같은 대중 강연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에 대한 합의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올바른 가족의 기능은 무엇인가, 혹은 올바른 가족의 기능이란 있는 것인가?', '바람직한 부부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족에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등 가족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적 명제에 대한 가족학자들간의 합의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기술습득에 치우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양한 철학과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가족생활교육사들을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우리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향상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향상프로그램의 세 가지 체제(주말숙박프로그램, 성장집단, 지지집단)의

효과에 대해서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실제로 Mace(1981)는 이 분야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적 경험이 삶의 학습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가족생활교육을 한 결과가 후의 가족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효과, 지도자의 자질, 연구방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의 결과이므로 종단적 연구설계와 비교집단을 이용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족생활교육이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판촉활동이 요구된다. Bowman과 Kieren(1985)은 가족이 가족향상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한 오해, 시간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판촉과 적절한 환경의 제공, 효율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편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안내책자나 포스터 등을 이용한 소극적 방법도 필요하며, 가족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가족과 부부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학회 차원에서의 계획과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의 자질과 능력이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에 의해 시행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신용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Mace, 1979)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향상 프로그램의 훈련과 학과목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정례화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만을 위한 학술대회가 생길 때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관련학회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을 알리는데 관련학자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 · 송말희(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3), 61-75.
-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윤자(1995). 가족생활교육. 유영주 외(1995). 결혼과 가족(pp. 355-39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오윤자 · 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05-218.
- 유은희(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1-17.
- 유은희 · 정현숙(1995).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 2권: 44-58.
- 유은희 · 홍숙자(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68.
- 유은희 · 홍숙자 · 전길량(1996). 중년 며느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미래인력연구센터. 고부관계향상교육 프로그램*. 32-48.
- 이성연 · 신상욱(1996). 노인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가정학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1), 93-105.
- 이정연 · 정혜정 · 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미래인력연구센터. 고부관계향상교육 프로그램*. 12-31.
- 조은숙 · 고선주 · 옥선화(1998).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4), 147-178.
- 최규련(1997).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의 한국에서의 적용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141-166.
- 최혜경 · 노치영(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 홍성희 외 5인(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홍숙자(1995). 노부모부양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홍숙자 · 이형실(1995).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제 2권, 14-43.
- 홍숙자 · 이형실 · 전길량(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 부양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09.
- Bowman, T., & Kieren, D. K.(1985). Underwhelming participation: Inhibitors to family enrichment.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17-622.
- Davis, E., Hovestadt, A., Piercy, F., & Cochran, S. (1982). Effects of weekend and weekly marriage enrichment program formats. *Family Relations* 31, 85-90.
- Doherty, W., McCabe, P., Ryder, R.(1978). Marriage encounter: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99-107.
- Dyer, P. & Dyer, G.(1990). Marriage enrichment process, methods and techniques. *Family Relations* 39, 1-17.
- Gurman, A., Kniskern, D.(1977). Enriching research on marital enrichment progra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11.
- L'abate, L., Ulrici, D., & Wagner, V. (1981). The E-R-A model: A heuristic framework for classification of skill training programs for couple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30, 307-315.
- L'abate, L., & Wright, L. (1977). Four approaches to family facilitation: Some issues and implic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6, 176-181.

- Mace, D.(1975). Marriage enrichment concepts for research. *The Family Coordinator* 24, 171-173.
- Mace, D.(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 A new field. *The Family Coordinator* 28, 409-419.
- Mace, D., & Mace, V.(1975). Marriage enrichment - Wave of the future. *The Family Coordinator* 24, 131-135.
- Mace, D., & Mace, V. (1981). The long, long trail from information - Giving to behavioral change. *Family Relations* 30, 599-606.
- Mace, D. & Mace, V. (1976). The selec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facilitators for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Family Coordinator* 25, 117-125.
- Otto, H.(1975).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programs in North America - Report and analysis. *The Family Coordinator* 24, 137-141.
- Smith, R., Shoffner, S., & Scott, J.(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A new professional area. *The Family Coordinator* 28, 87-93.
- Stedman, J.(1982). Marriage encounter: An "Insider's" consideration of recent critiques. *Family Relations* 31, 123-129.